University of Incheon

송도캠퍼스 406-77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송도동 12-1)
제물포캠퍼스 402-808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165 (도화동 193-6)
www.incheon.ac.kr

Designed by_ C&C 02.333.5029

비상의 날개

UI + Takeoff

인천대학교 소식

University of Incheon Newsletter

2011 ● vol. 53

University of Incheon

contents

UI, Taking a road

04 **Special Theme 1** _ 5대 특성화 사업의 현황
06 **Special Theme 2** _ 5대 특성화 사업의 비전
08 **UI Global Standard** _ 국제교류 프로그램
10 **To The World Best** _ 2011 국제자원봉사 워크캠프

UI, Taking a dare

12 **Dynamic UI** _ 산악부
14 **Future Leader** _ 이승민, 이동훈 / 오아시스 팀 / 이소영
16 **UI Mentor** _ 박정동 교수
18 **Pride of UI** _ 황민철 동문
20 **Innovation Incubator** _ 창의인재개발학과 / 에너지화학공학과

UI, Taking a hold

22 **Regional Potential** _ 인천대학교 계약학과
24 **Innovation Project** _ 2012 신설대학 및 학과 소개
26 **Blue Engine** _ 2011 가족회사 만남의 장
28 **Wide Network** _ 제1회 도시 이노베이션 페스티벌
30 **2012 대학입학 전형**

32 **UI is Now** _ 인천대학교 소식
36 발전기금 소개
37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39 발전기금 출연자

발행일 2011년 12월 7일
발행처 인천대학교 대외협력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12-1) TEL. 032-835-8114

비상의 창

UI + Takeoff

동북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가는 인천대학교.
젊음의 기상과 단합된 힘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World's Top 100으로
희망차게 비상합니다.
글로벌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천대학교의 힘,

플러스 테이크오프!

5대 특성화 사업으로 World's Top 100을 향해 힘차게 비상합니다!

동북아 시대를 이끌 주역을 양성하다

국제통상 및 물류분야

국제통상 및 물류 분야는 특성화 역사가 가장 오래된 분야로서 인천대학교는 1997년 국제통상 분야를 지방대학 특성화 분야로 선정, 동북아 국제통상학부를 신설하였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4개의 통상 전공을 중심으로 전공국가 현지유학을 포함하여 4년간 전체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 및 기숙사 생활을 제공해 왔다. 특성화 1단계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경쟁요소를 두루 갖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전공지식과 함께 다양한 실습경험, 외국어 실력 배양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심화된 전문교육을 통해 자신을 개발하고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집중 배양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물류전문인력의 메카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문 간 통섭으로 가치를 높이다

지능형시스템융합분야

기초 자연과학은 물론 인문, 사회, 생명과학, 의학, 공학 등이 학제적으로 통합된 현장 중심형 전문인력과 IT, BT, NT 등이 결합된 신생 융합기술 분야의 창의적 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대학교는 산학협동 활성화를 통한 산업체 기술개발 및 현장중심의 산업인력을 양성함과 아울러 신생 융합기술 분야의 창의적 인력양성 및 학제 간 통합을 통한 현장중심형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선행조사된 다양한 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분야 중 스마트 IT 융합 트랙, 지능형로봇 융합 트랙, 신에너지 융합 트랙을 중심으로 융합기술 교과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기술과 혁신적인 신개념 제품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배출하게 될 것이다.

인천대학교는 미래 유망산업의 발전추세와 정부 및 인천시의 발전계획을 토대로 국제통상 및 물류, 지능형시스템융합, BNT 기반 생명과학, 도시과학, 지역인문학 등 5대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지정하고 아낌없는 투자와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World's Top 100 by 2020이라는 UI Vision을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북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인천대학교의 발전 청사진을 살펴본다.

바이오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다

생명과학분야

송도 신도시는 첨단생물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생물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바이오 관련 연구소나 기업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대학교는 나노 의약개발에 궁극적인 목표를 둔 'BNT 기반 생명과학분야'를 육성하며 1단계(2010~2012)에서는 생리활성 바이오 신소재의 개발과 활성 탐색을 위한 나노 기술 기반 물질의 제어 및 측정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반의 조성 및 연구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 인천 분원 산하 Joint Bio Energy Institute(JBEI)와 국제협력을 통해 합성생명과학과 BioCAD를 기반으로 한 생명공학표준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송도 신도시 내의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선도함은 물론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과 보전의 조화를 꾀하다

도시과학분야

세계적으로 도시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발전방향이 다양화되면서 환경문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인천은 인구 수에서 전국 3대 도시이며 국내 최대, 최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천공항 등을 위시하여 Penta-Port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선도 도시로서 원도심과 신도시의 상생발전과 수도권 경제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미래 유비쿼터스 첨단도시와 미래 친환경 녹색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대학교는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을 근간으로 미래 지향적 첨단도시를 추구하고자 공학과 인문사회 분야가 상호 융합된 지역기반의 도시과학대학을 출범하였으며, 특성화를 통하여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인천의 발전을 선도하고자 한다.

소통과 상생의 인프라를 다지다

지역인문학분야

최근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대학교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지역인문학의 육성'을 통하여 인천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지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성장한 인천을 문화도시, 창조도시로 혁신하기 위한 글로컬 인문학(Glocal Humanities)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연구인력 육성, 지역을 넘어선 글로벌화와 업그레이드를 위한 아시아 사회의 문화 비교연구, 시민계몽 및 소통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는 박물관 교육에 대한 한독비교 연구, 근대도시 인천과 일본의 역사적 교류 및 문화적 환류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하여 인문학적 소양과 국제성, 지역성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인천과 아시아의 인문학 거점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자 한다.

교육혁신을 실현하여 세계를 향해 비상합니다!

2009년 송도 캠퍼스 이전, 2010년 인천전문대학과의 통합 등 대학 발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온 인천대학교가 5대 특성화 사업을 통해 대학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UI Vision 2020에 입각한 5대 특성화 사업에는 교육, 연구, 행정, 재정의 혁신을 통해 세계 지성의 요람으로 비상하고자 하는 인천대학교의 장기발전전략이 담겨 있다. 인천대학교 박동삼 기획예산처장을 만나 인천대학교의 현안과 계획, 그리고 미래비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박동삼
(기획예산처장 /
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 및 핵심 과제에 대해.

우리 대학은 2009년 송도 신캠퍼스로의 이전과 2010년 3월 인천전문대학과의 통합대학 출범을 계기로 제2의 창학을 선언하였으며 대학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계기로 삼고자 했던 국립대학법인화는 아직 국회심의 중이라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법인화는 인천시민과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의 숙원사업이었고, 2009년에 법인화 법률안이 국회 교과위에 의원 발의된 이후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아직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현재 우리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는 5대 특성화 학문분야를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대학의 전반적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2020년까지 국내 10위권의 대학, 세계 100위권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발전계획인 'UI VISION 2020'을 수립하여 대학 전 분야에 걸쳐 단계별 발전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5대 특성화 분야의 선정 의의와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대학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나 정부의 고등교육 육성정책과 대학구조조정 추진 등을 고려할 때, 대학 발전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특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특성화 분야는 시립대학이면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유일한 종합대학이라는 특수성과 우리나라 유망산업분야의 인력수요전망, 대학 경쟁력 및 학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정하였습니다. 5대 특성화 분야는 앞으로 우리 대학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대학은 5대 특성화 사업에 대학예산 약 1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연구비나 기자재 지원은 물론이고 해당 분야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성화 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금년도 사업 종료 후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지원 예산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 취소 등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명문으로 도약하는 인천대학교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 대학은 이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등 외국 유명대학 3곳의 분교 유치 및 미국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 등 2개 외국 연구기관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은 국제화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학생들에 대한 국제화 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전 학생의 10% 정도를 장 · 단기 프로그램으로 외국대학에 파견할 계획으로, 학생 인력풀의 사전구축과 어학능력 제고를 위한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들에게는 외국 저명대학 해당 학과와의 학술 및 연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도 외국대학 단기 파견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로 인해 우리 대학 안경수 총장은 금년도 '글로벌 CEO' 상과 '2011 참교육 대상(국제화협력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한 말씀.

우리 대학은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서 지역과 연계한 국제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의 유명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신캠퍼스 조성으로 교육환경도 첨단화되어 있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학입니다. 등록금 역시 연간 평균 510만 원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전국 대학 중 상위권입니다.

재학생들에게는 이제 인천대인으로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대학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조만간 대학평가나 취업경쟁에서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히 도전하는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남은 과제는.

우리 대학의 최대 현안은 국립대학법인화입니다. 여러 이견과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대학을 최단 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국립대학법인화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대학선진화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하여 교육 · 연구역량 제고는 물론 우리 대학의 위상 제고에 대학구성원 모두가 함께 손잡고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인천대학교가 꿈을 향해 비상합니다!

인천대학교는 세계 24개국 144개 대학과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국제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UI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 미래지도자 프로그램, SAF 프로그램,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 풍부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며 자신의 가치를 키우고, 넘치는 열정과 기상으로 세계 속에서 당당히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글로벌 비전의 심장, 국제교류원

학생교환 프로그램을 비롯해 교수 상호방문, 직원 어학연수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대학교가 동북아를 넘어 세계 명문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제교류원. 스페인 말라가대학교와의 교류 협정을 비롯해 세계 명문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약을 통해 송도 제2캠퍼스를 Joint R&D 캠퍼스로 조성하고자 노력할 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World's Top 100이라는 인천대학교의 비전을 이끄는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를 넘어 세계를 향한 창'이라는 인천대학교의 슬로건에 걸맞게 세계 24개국 144개 대학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으며, 기존 중국 일변도의 국제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전 세계 대학과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국제 교류의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세계로 뻗어 나가는 인천대학교의 위상과, 이를 책임질 국제교류원의 화려한 비상을 기대하며 인천대학교의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International Programs

글로벌 리더의 꿈을 향한 최고의 선택

- 교환학생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란 재학기간 동안 학생교환협정을 체결한 외국자매대학에서 일정 기간 수학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이다. 선진 외국대학에서 강의를 받음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학문세계를 경험하고, 외국어 연마와 더불어 외국의 문화와 풍습을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휴학을 하지 않고도 외국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어 글로벌 리더를 향한 꿈을 펼치는 기회를 제공한다.

차세대 리더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

- 미래지도자프로그램

미래지도자프로그램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교환학생 수학 경비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애교심을 고취하고 인천대학교와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미래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장기교환학생의 경우 연간 200~350만 원의 지원금이 지원되며, 이외에도 사회봉사, 저명인사의 특강, 사회 · 문화체험, 독서토론회 및 워크숍 등 다양한 사회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역량 있는 미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세계적인 학문지원 서비스

- SAF 프로그램

SAF재단은 비영리 공공교육 재단으로서 한국, 일본, 대만을 비롯한 전 세계 대학생들에게 해외 유학의 기회 및 학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8년 SAF에 가입한 인천대학교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70여 개 대학에 방문학생을 파견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문화교류와 토의를 통해 세계 공동체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실력과 자질을 겸비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

- 어학연수 프로그램

인천대학교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해외 경험과 어학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영어권,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에 학생들을 파견하여 외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중 진행되며 학업성적, 어학능력, 인성 및 자질 등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여 항공료 및 수업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고 있다.

세계를 향한 따뜻한 손길

2011 국제자원봉사 워크캠프

바게트의 고소한 향을 따라 프랑스로

임보람 (중어중국학과 08)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프랑스의 Samur en Vallon 마을에서 전통 골목에 있는 벽을 허물고 새로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돌이 떨어지지 않게 잘 맞추고 시멘트를 만들어 바르는 간단한 일이었지만, 워낙 변덕스러운 프랑스의 날씨 때문에 곤욕을 치렀지요. 이외에도 의사소통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주민이 마련해주신 바비큐 파티나 지역주민 초대행사, 완공행사 등 지역주민 및 외국인 캠퍼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잊히지 않습니다. "벽이 단절과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함께 모이게 했다."라는 프랑스 어느 의원의 말처럼 '벽 짓기'를 통해 지역주민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함께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하계방학 동안 실시한 2011 국제자원봉사 워크캠프에 인천대학교가 처음으로 학생들을 파견하였다. 학생들이 국제적 역량을 지닌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기 바라는 한 기부자의 후원에 힘입어 참가비용 및 항공료가 전액 지원된 이번 캠프에는 임보람, 송광원, 정다혜 학생을 비롯한 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모범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천대학교를, 나아가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린 그들을 만나본다.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젊은이들이 함께 생활하며 자원봉사활동과 문화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국제자원봉사 워크캠프. 외국인과 직접 교류하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더불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이번 캠프에는 많은 학생이 지원하며 국제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서류심사를 비롯한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최종 6명의 학생이 선발되었으며 자원봉사 훈련 워크숍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7~8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에 파견되었다. 15~20일에 걸친 시간 동안 외국 학생들과 교류하며 봉사 활동을 하고 돌아온 학생들은 워크캠프의 다채로운 경험과 생생한 감동으로 한층 더 성장해 있었다.
작은 손길로 사랑을 실천하고 세계인과 교류하며 봉사와 나눔의 소중함을 배워온 인천대학교 학생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터닝포인트를 겪은 이들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는 인천대학교의 힘찬 발걸음을 기대해본다.

신선함이 살아 있는 이탈리아의 자연 속으로

송광원 (무역학부 08)

밀라노에서 약 1시간의 거리에 위치한 국립공원이 바로 워크캠프 장소였습니다. 자연경관이 그야말로 장관이었던 이곳에서 저는 산이나 도로변에 위치한 공원의 잔디를 깎고 나무 베는 일을 하였습니다. 주로 오전 시간에 업무가 이루어진 까닭에 오후에는 동료 캠퍼들과 주변 명소를 여행하거나 지역민들과 교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워크캠프에서는 현지인과 교류하고, 또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나라에 대해 더 깊숙하고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여행 또는 봉사 이상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 여름에 다시 한 번 워크캠프에 참여하여 이번 캠프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질감보단 친근함이 느껴지는 독일로

정다혜 (행정학과 10)

소시지의 향이 물씬 풍기는 독일의 뮐하우젠에서 장애인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시설의 벽을 보수하거나 페인트칠을 하고 농장의 울타리를 교체하는 일이 주된 업무로, 비록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지만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지요. 처음에는 낯선 이국의 땅에서의 시간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며 이질감보다 친근함을 더욱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배려와 관심으로 대해준 지역주민과 동료 캠퍼들 덕분이었습니다. 워크숍을 비롯해 지역주민과 함께했던 순간들은 독일을 더욱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 생애 가장 소중한 기억, 워크캠프! 학교의 모든 친구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장 참여해!'라고요.

뫼의 숨결을 담다!

산악부 매력 집중 탐구

제아무리 높은 산일지라도 하늘 아래 뫼일 뿐이라며 언제나 도전을 멈추지 않는 특별한 동아리가 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대학교 제1호 동아리인 산악부가 바로 그곳. 산을 향한 열정과 젊음의 패기,
그리고 선후배 간의 돈독한 정으로 똘똘 뭉친 산악부의 매력을 집중 탐구해 본다.

3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대학교 제1호 동아리

산악부는 인천대학교의 수많은 동아리 중 가장 먼저 탄생한 동아리이다. 정식명칭은 UIAC(University of Incheon Alpine Club)로,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1979년 제1호 동아리로 등록된 이후 올해로 33기를 맞았다. 현재 재학생과 졸업생을 포함하여 50여 명의 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산악연맹에도 가입되어 있어 학내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산악부와의 활발한 교류를 자랑한다. 대학산악연맹에서 최우수 대학산악부상을 2번에 걸쳐 수상할 만큼 교내외에서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선후배 간에 쌓이는 훈훈한 정

졸업한 선배와 후배가 쉽게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은 인천대학교 산악부의 가장 큰 장점. 산악부 회장 심혜진(조형예술학부 10) 학생은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산에 대한 경험과 지식뿐 아니라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며, 다른 동아리와는 달리 재학생과 졸업생의 가족 같은 분위기야말로 산악부의 자랑이라고 말한다.
"산이라는 매개체 자체가 나이를 불문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번 산행에 졸업한 선배님들이 참가하세요. 산행 뒤에는 맛있는 하산주도 사 주시고, 때론 고가의 장비들을 구입해 주십니다. 20살 신입생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선배님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교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악부예요."
힘들게 산행을 한 뒤에 마시는 물 한 모금의 소중함과 정상에 올랐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법. 산행의 고단함과 두려움을 함께 이겨낸 기억들이 30여 년의 세월을 넘어 이들을 더욱 끈끈히 뭉치게 하는지도 모른다.

강한 훈련으로 다져진 실력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 모두가 해외원정산행 경험이 있을 만큼 인천대학교 산악부원들의 실력은 자타가 공인한다. 이를 위해서 평상시 훈련은 기본. 산악부에서는 매주 모임을 통해 일주일의 계획을 세운 후 보통 2주에 한번 산행을 나가 하중훈련 및 워킹, 암벽 등반훈련을 한다. 또한 학기 중에 쌓은 훈련과 경험을 바탕으로 방학 중에는 장기 산행을 다녀온다. 이번 동계방학 때는 설악산과 한라산에서의 동계훈련을 통해 장기 종주등반을 비롯해 빙벽등반, 설상보행기술 등을 습득할 예정이라 한다.

실력의 또 다른 이름, 도전

인천대학교 산악부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대학산악부 최초로 세계 7대륙 최고봉을 등정했다는 것이다. 인천대학교 개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산악부는 원대한 해외원정 등반계획을 세우고, 1998년 북미 최고봉 매킨리를 시작으로 2003년 유럽 최고봉 엘부르즈, 2004년 남미 최고봉 아콩가구아, 2005년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2006년 오세아니아 최고봉 코지어스코, 2007년 남극 최고봉 빈슨매시프를 거쳐 지난 2009년에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 등정함으로써 10년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산악부로서는 짧은 편에 속하는 역사와 경비문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후배들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인 만큼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이후에도 2010년 히말라야 나야캉카봉(5,844m), 2011년 중국 사천성 반지설산(5,430m) 등정 등 세계를 향한 인천대학교 산악부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산은 매번 갈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쉽게 정상을 내주지 않는 거친 산을 보며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배우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정상에 올라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우죠. 자연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산을 통해 배우고, 산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인천대학교 산악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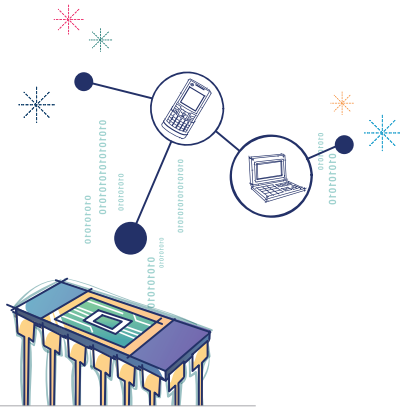
학내에서 3D 동아리라고도 불릴 만큼 힘든 훈련을 견디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산악부를 보며, 산행을 통해 몸도 마음도 더욱 성숙해가는 젊은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꿈꿔본다.

기회를 현실로 바꾸는 젊음의 힘

꿈을 향해 전진하다!

언제나 도전의 자세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근성은
그에 합당한 결과물을 내놓으며 빛을 발하고야 만다. 남다른 열정과 통찰력으로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열매를 만들어가는 인천대학교의 젊은 인재들.
그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살짝 들춰본다.

●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끊임없는 연구 끝에 유종의 미를 거두다

이승민 (전자공학과 04), **이동훈** (전자공학과 06)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며 석 · 박사를 능가하는 연구실적으로 화제가 된 인천대학교의 젊은 브레인들이 있다. 바로 전자공학과 이승민(사진), 이동훈 학생. 지난 동계방학부터 지도 교수님의 권유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들은 공동 집필한 논문 2편을 SCI급 학술지에 게재하며 인천대학교의 남다른 연구능력을 세상에 알렸다.

첨단 반도체의 일종인 다중 게이트 CMOS 소자의 노화현상과 이를 줄이기 위한 최적의 소자 레이아웃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두 학생은 연구 내용을 토대로 2편의 논문을 작성하고, 이를 미국전기전자공학회(IEEE)의 논문집인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레터(EDL)지와 영국전자학계 논문집인 Microelectronics Reliability에 수록하였다. 두 학생의 논문지도를 맡은 박종태 교수는 "교수들의 논문도 미국전기전자공학회 논문지에 실리는 경우가 드물다."며 학생들의 논문 수준을 높게 평가했다.

"모든 소자의 특성이 동일하지 않아서 측정 데이터가 예상했던 대로 나오지 않거나 측정하는 중에 소자들이 고장 나서 난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복의 과정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예상하던 결과가 나왔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실제 반도체 소자를 가지고 측정 및 분석을 하며 학부생으로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공부를 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이승민 학생은 단지 반도체 분야의 공부를 좋아해서 시작한 연구가 SCI 논문 게재라는 큰 결과를 얻어 매우 뿌듯하다고 말한다. 더불어 연구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레이아웃을 가르쳐주며 물심양면으로 지도해주신 박종태 지도교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현재 지도교수님과 함께 다른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끌어주시며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신 교수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공분야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쌓고자 합니다. 그리고 엠코 코리아 반도체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늘 인터뷰에 나오지 못한 동훈이는 산업 현장에서 그동안 배운 지식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반 산업이자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지닌 IT 산업의 떠오르는 샛별 이승민, 이동훈 학생. 적성에 맞는 공부를 찾아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줄 멘토를 만나 매우 행복하다는 이들을 보며 우리나라 IT 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대학생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인천대 총장상 수상

청년 창업의 꿈을 이루다

오아시스 팀 **김지훈, 송우현, 최권일** (전기공학과 06)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 생활 속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의 꿈을 실현한 학생들이 있다. 바로 2011 대학생 창업동아리 경진대회에서 'RFID 칩을 이용한 지하철 · 버스 하이패스'로 인천대 총장상을 받은 오아시스 팀 송우현(사진 左), 김지훈(사진 右), 최권일 학생.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며 리더기에 카드를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카드를 소지하고만 있어도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현재 지원받은 아이템 개발비로 특허 출원 및 아이템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들은 창업동아리 발굴대회 금상, 미추홀창업경진대회 중소기업청장상,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 창업보육센터장상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견을 조율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키우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동아리를 만들기 전에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컸지만, 친구들과 함께 여러 대회에 참가하며 수상의 기회와 함께 실력도 키울 수 있었다는 오아시스 팀은 인천대학교 학우들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열정을 쏟으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한다. 앞으로 다양한 대회를 통해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싶다는 오아시스 팀의 당찬 포부를 들으며, 취업난이라는 메마른 사막에서 희망의 오아시스가 될 이들의 미래를 그려본다.

환경을 위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이소영 (건설환경공학과 석사과정 4차)

제 1 회 환경사랑 논문 공모 및 발표대회에서 정수 처리 분야에 대한 연구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소영 학생.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정수장 내 침전지 시설에 침전효과를 증대시키고 응집된 오염물질을 최대한 침전지 앞쪽에 가라앉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던 중 인천시 환경공단에서 주최한 이번 공모전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다고.

이미 여러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했던 경험이 있어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실험은 언제나 힘들다고 하는 이소영 학생은 세계 13개 국가 60여 명의 물 전공 학생이 참가한 '2011 하이드로아시아' 프로젝트에서도 최우수 MVP 상을 받은 실력파 학생이다. 타 대학에서 학부과정을 졸업한 그는 인천대학교에 입학한 뒤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에 다녀오고,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학문적 깊이를 쌓을 수 있었죠. 지난 1년여의 세월은 우물 안 개구리였던 저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1월 말에 있을 석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소영 학생. 세계 최고의 물 전문가를 꿈꾸며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의 앞날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환경사랑 논문 공모 및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전쟁의 포화 속에서 희망을 재건하는

박정동 교수

서남아시아와 중동의 교차 지역에 위치한 이슬람 국가 아프가니스탄. 1970년대 일어난 내전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극도로 황폐해진 이 나라에 최근 들어 조금씩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다. 미약하게나마 안정을 찾아가는 정세와 다시 일어서려는 자국민의 의지,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뻗은 도움의 손길이 바로 그것이다. 안식년을 맞아 한국 지방재건팀 자문단장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어 1년여의 세월을 포화 속에서 보내고 돌아온 박정동 교수(무역학과)를 만나 아프가니스탄 재건의 꿈을 들어보았다.

아프간에 파견된 계기는.

제 전공이 후진국 개발경제학입니다. 작년에 안식년을 맞아 외교통상부의 요청으로 한국 지방재건팀 자문단장을 맡아 아프간 재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프간은 어떤 나라인지.

아프간은 1979년 소련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30여 년에 걸친 내전과 외침으로 인해 경제개발의 기초적인 기반마저 파괴된 상태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인구가 67.8%에 이르지만 국토 전체의 12% 정도만 경작이 가능하고, 그나마도 고질적인 가뭄,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 전쟁 기간 중 마약 재배의 붐이 일어 아프간 국민의 약 9%가 양귀비를 재배하는 등 세계 최대의 아편 생산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 43세는 아프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죠. 현지인들이 나를 보며 "당신은 이미 52세다.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보너스다."라고 말할 때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위험한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귀국하던 날에도 탈레반이 쏜 것으로 보이는 로켓포가 떨어져 숙소 앞에 서 있던 첨성대 모형 등 시설물을 날려버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부대 밖을 나갈 때는 군인 동승하에 전차를 타고 나가야 하고, 영외활동을 할 때는 20kg짜리 방탄조끼를 입어야 할 만큼 아직은 정세가 불안합니다.

아프간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했나.

농촌개발, 인적자원개발, 도시경제개발 등 크게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아프간 재건계획을 세우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현재 아프간의 상황은 1950년대 한국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실시된 새마을운동을 모태로 삼아 농촌개발전략을 세우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우리나라의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70년대 박정희식의 경제개발모델에 대해 폄하하기도 하지만, 빈곤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제3세계에서는 성공한 경제발전모델로서 한국을 최고로 인정합니다. 또한 농촌개발정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등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열성이죠.

귀국 후 보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가다'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1년 전 떠날 때 보니 아프간에 관한 책이 거의 없더군요. 470여 명의 한국인이 현지 재건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가 있고 한국국제협력단이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곳인데 비해 아프간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지에서 밤을 새워가며 책을 쓴 진짜 이유는 전쟁과 빈곤에 찌든 절망의 땅에 한국의 성공모델이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50~60년대 우리나라 상황을 떠올리며, 한국의 경제개발모델을 동시대의 저개발국민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죠. 저는 이 책을 2,800만 아프간 국민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원조를 받다가 원조하는 입장으로 바뀐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50여 년 전 필리핀의 국민소득이 170달러였을 때 76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이,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제3세계 동시대인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선사할 때입니다. 앞으로 저는 후진국의 젊은 리더들을 불러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교육하는 학교를 설립하려 합니다. 이르면 1년 안에 소규모 프로젝트라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삶의 목표를 찾았다는 점에서 아프간에서의 1년은 저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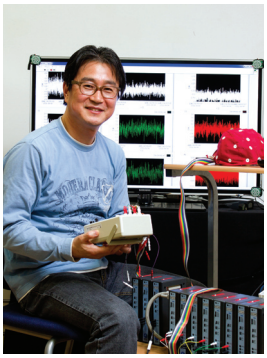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아프간과 그의 인연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가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펼칠 그날을 기다려본다.

따뜻한 감성으로 스마트 세상을 선도하는

황민철 동문

황민철
(기계공학과 79,
상명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감성 마케팅, 감성 디자인, 감성 리더십 등 여러 신조어의 등장에서 알 수 있듯이 '감성'은 어느덧 21세기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밑바탕에는 과학과 감성, 기술과 문화를 융합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감성과학이 존재한다. 상명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이자 한국감성과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감성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황민철 동문. 그를 만나 스마트 세상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드는 따뜻한 감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과학에 감성을 입히다

"감성과학이란 심리학을 비롯한 인문학과 공학, 의학 및 디자인을 융합해 인간의 감성을 규명하고 이를 제품, 시스템, 환경에 적용하여 감성적인 삶과 환경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기계의 편리함을 넘어 사용자의 감성을 담아냄으로써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감성적 소통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성공학 및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로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에 2차례에 걸쳐 등재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감성과학 분야의 일인자 황민철 동문. 감성과학이라는 분야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1990년대 중반 인간공학, 인간 – 컴퓨터 상호작용(HCI, Human – Computer Interaction)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며 150여 편의 논문을 통해 감성과학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몰두하였다.

전신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TV를 켜고 창문을 열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나 자동차 인터페이스의 변화를 통해 사용자의 감성에 충실한 환경을 만드는 연구 등 그동안 진행한 연구에는 인간의 감성적 욕구를 기계에 고스란히 담아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기계를 요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성적인 소통을 원합니다. 휴대폰의 경우 처음에는 '통화'라는 본연의 역할이 강조되지만, 점차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만족을 주기 위해 사용자의 추상적인 경험을 담고자 하지요.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로봇의 얼굴에 피부를 붙이고 춤을 추게 하는 것은 기능과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교감입니다. 사용자의 감성을 담아내는 제품을 통해 세상이 더욱 스마트해지는 것 아닐까요."

미래를 여는 키워드, 감성

휴대폰과 로봇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모든 제품에서 감성화가 시작됐다고 강조하는 황민철 동문은 SNS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키워드로 '감성'을 꼽는다.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소통하게 하는 제품이야말로 차세대 경쟁력입니다. 아바타나 페이스북, SNS 등을 보면 미래사회의 방향을 알 수 있지요."

'감성'이야말로 미래사회를 이끌 소통의 미디어라는 그는 최근의 아이폰 열풍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한다. 절제된 디자인, 사용자 친화적인 조작 환경, 풍부한 콘텐츠, 그리고 각종 앱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업무 환경 구축 등 기존 IT 연구에 사용자 경험과 감성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결과를 융합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감성과 관련한 연구 ·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감성과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감성과학 이론을 정립하고 감성과학 분야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기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담아

지금은 감성과학 분야의 일인자로 자리매김한 그이지만 지나온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공과대학 부문에서 세계 10대 명문으로 손꼽히는 조지아공과대학에서 의공학을 전공하고 귀국한 그는 학문 분야에 대한 인지도가 적었던 국내 현실로 인해 인접 학문인 감성과학 분야를 연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니 의공학 분야에 대한 수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촉망받는 분야였지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인간공학실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자연스레 인간공학과 HCI 분야로 연구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의공학과는 달리 인간을 외부에서 조망하며 감성과 소통을 중시하는 감성과학 분야에 큰 매력을 느껴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는 황민철 동문은 그동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으로 단연 유학시절부터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해 준 인천대학교 동기들을 꼽는다.

"기계공학과 동기들과의 소중한 추억은 힘든 유학생활을 버티는 힘이 되어 주었죠. 유학생활 5년이 되던 해인가 조지아공대가 있던 애틀랜타에 소주가 처음으로 들어온 날이 기억납니다. 자주 가던 한식당에서 연락을 받고 대학원 친구들과 소주를 마셨는데요. 처음 한 잔을 마시는 순간,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동기들에 대한 그리움이 소주 한 잔에 담겨 있었죠."

'직업'과 '업'의 차이를 논하며

인터뷰를 마치며 인천대학교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황민철 동문은 당부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

"이제 곧 졸업 시즌입니다. 다들 취업 준비로 바쁠 테지요. 졸업을 앞둔 후배들에게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평생토록 할 일을 찾는 것이니만큼 조금 늦더라고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제 나이가 되면 사람들의 삶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고 있는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과 '그냥'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후배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진하게 전해오는 그의 충고를 들으며 꿈보다는 현실에, 감성보다는 기능에 중점을 두며 살아왔던 현재의 삶을 되돌아본다. 감성과 과학의, 문화와 기술의 만남을 통해 보다 풍요로워질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기업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의인재개발학과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은 국가 및 기업 발전의 핵심요소이다.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기업 및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를 선발, 교육하는 기업교육 전문가를 양성한다. 창의성은 물론 인간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 실무 능력을 겸비한 인재들이 가득한 곳, 창의인재개발학과의 숨겨진 매력 속으로…

기업 인재를 육성하는 전문가 배양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학부과정에 신설된 창의인재개발학과는 기업과 조직에서 요구하는 창의성, 상상력,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 교육, 활용할 수 있는 기업교육 전문가(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조직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며, 업무에 혁신을 꾀하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가이니 만큼 자질과 소양은 기본. 창의인재개발학과에서는 '인적자원개발론', '첨단 테크놀로지와 HRD' 등 HRD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및 상담' 등 심리 관련 과목과 '창의적 문제해결 및 발견', '창의적 인재와 교육' 등 창의성을 배가할 수 있는 과목들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 대한 현장 실습 및 실무경험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이론과 실행능력을 겸비한 전국 최고의 HRD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열린 미래, 열린 가능성

창의적 인재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높은 만큼 졸업 후 진로는 매우 다양하게 열려 있다. 우선 HRD 역량을 바탕으로 컨설턴트 및 인재개발 관련 기업을 비롯해 기업 및 조직체의 인사 관련 부서에 입사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다. 또한 임상심리 전문가와 같은 심리상담 분야와 창의성 연구소 등 창의력이 요구되는 직업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21세기 인재육성의 핵심키워드가 바로 창의성인 만큼 여러 가지 요소들과 결합할 수 있어 진출분야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성, 교육공학, HRD 세 가지 영역을 융 · 복합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업교육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한기순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요구를 깨닫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1 : 1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구체적인 진로와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한다.

학생들을 향한 아낌없는 지원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전국 일류학과로 발돋움하고 있는 창의인재개발학과. 창의력으로 무장한 인천대학교의 젊은 인재들이 펼쳐갈 열린 미래를 응원한다.

차세대 에너지 산업을 책임질 싱크탱크

에너지화학공학과

세기 내 화석에너지의 고갈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신 · 재생에너지의 개발은 인류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범세계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해결하고자 2010년 신설된 인천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과! 1년여의 짧은 시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며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희망을 밝히고 있는 그곳을 찾았다.

최적의 환경에서 키우는 신에너지를 향한 꿈

인천대학교 5대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설된 에너지화학공학과는 학과 명칭 그대로 화학공학을 기반으로 연료전지, 태양전지 등을 포함한 신에너지에 접근하는 길을 열어주는 학과이다. 자연과학적 기초지식은 물론 엔지니어로서의 기본 소양과 심도 깊은 전공지식을 교육하여 신 ·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차세대 에너지 산업을 담당할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화학공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전공과목을 대폭 강화한 교육과정. 최근 취업난이 심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하여 교양과목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학점 인플레이션 경향을 산업체에서도 알고 있는 까닭에 학생들이 수강한 전공과목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화학공학과에서는 전공과목의 비중을 확대하고, 실험 · 실습 등 실무 위주의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과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만큼 교육 및 연구 환경은 최근의 연구 경향을 반영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한다.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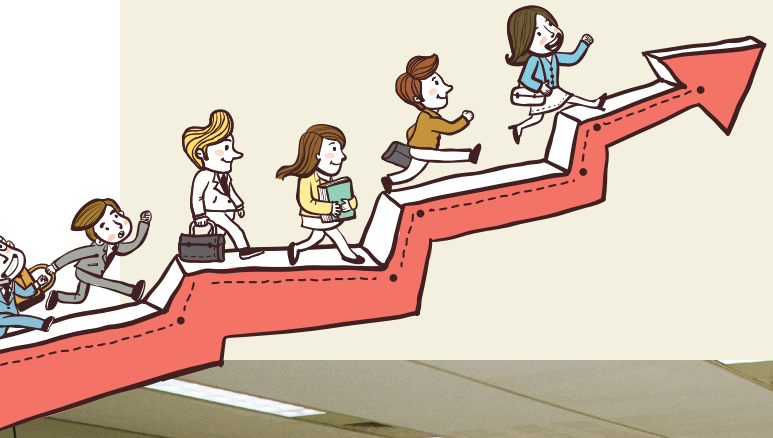
신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만큼이나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하다. 화학공학 관련 진로뿐 아니라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신 · 재생에너지 산업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며, 타 학과와는 달리 '공정'을 다루는 특성상 정유산업, 화학산업, 반도체 산업, 바이오산업 등 진로선택의 폭과 가능성은 무한하다.

"공학 관련 학과로서 수학과 과학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학생을 원한다."는 권오중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 "엔지니어로서 답을 맞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답을 유추하는 과정도 중요시해야 결론을 이끌어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이어 "아직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학과의 틀 때문에 재학생들이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가며 학문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말한다.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학문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에너지화학공학과. 비상하는 인천대학교의 기세와 함께 눈부시게 성장할 에너지화학공학과의 앞으로 행보를 기대해본다.

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가교,

인천대학교 계약학과를 가다



산학협력과 실용학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학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이론에만 치우친 상아탑 속의 교육에서 벗어나 기업 및 산업체와 협력하며 실무 위주의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학은 재원을 늘리는 동시에 실무 경험을 통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기업은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서로가 윈윈하는 현장, 인천대학교 계약학과를 심층 탐방한다.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학과

계약학과란 산학협력차원에서 대학과 산업체가 협약을 맺고 해당 산업체가 요구하는 학과를 정원 외로 설치 · 운영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학 내 정규학과와 동일하게 학위가 수여된다. 운영 방식에 따라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두 종류로 나뉘는데 채용조건형이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요구하는 것이며, 재교육형은 산업체에서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IT 분야를 비롯한 첨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계약학과의 설립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일반 대학들이 첨단 산업 분야의 교육 환경을 갖추기는 쉽지 않을뿐더러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은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재원을 늘리는 동시에 현장 교육 시설을 제공받음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업은 교육과정 개설부터 학과 운용까지 직접 관여해 처음부터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 계약학과는 산학협력의 대표적인 예로 지속적인 확산 추세에 있다.

인천지역 재교육의 메카로 부상하다

이미 부산대, 서울시립대 등 일부 대학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학과를 운영 중이며, 인천대학교는 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산업체 등 193개 업체와 협약을 맺고 지난 3월 계약학과를 설치하였다. 정보전자공학과, 전기에너지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IT서비스공학과, 레저스포츠학과, 도시정책관리학과, 건설환경관리공학과, 도시시설관리공학과, 도시건축공학과, 테크노경영학과 등 현재 재교육형 10개 학과에 23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
인천대학교 계약학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학과 운영. 인천전문대학과 통합하면서 기존 전문대 졸업생 및 산업체 위탁반 출신의 수요가 많아 주로 3학년 편입학 과정을 위주로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과별 산업체별로 동일계, 비동일계 전공자의 수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교과과정의 편성을 비롯한 학과 운영을 해당 학과에서 전담하고 있다. 이외에도 풍성한 장학 혜택 또한 인천대학교 계약학과의 큰 자랑이다. 등록금의 50%를 산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20% 내로 편성함으로써 전체 학생수 대비 장학금 수혜율이 47%에 이른다. 차별화된 학과 운영과 풍성한 혜택으로 인천대학교 계약학과는 인천지역 산업체 재교육의 메카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현장 밀착형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 테크노경영학과

올 하반기부터 신설된 테크노경영학과는 현장 밀착형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인천대학교는 남동인더스파크(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를 비롯한 외부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0월 테크노경영학과를 개설,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제물포 캠퍼스에 위치한 기존의 계약학과와는 달리 테크노경영학과의 경우 남동산업단지 내 남동인더스파크에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 및 기업체에 다가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대학교는 향후 남동인더스파크에 추가 학과 개설을 모색하고 있으며, 인천을 대표하는 산업단지이니만큼 그 수요와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천대학교는 인천지역 관공서를 비롯해 서울 · 경기권 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학과 홍보 및 모집에 주력하고, 더불어 입시전형 및 안정적인 학사관리를 통해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과과정을 수용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협약업체 직원들에게는 대학의 문턱을 낮추어 전공기술 및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현장의 흐름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인천대학교 계약학과!
대학과 기업의 새로운 협력 모델인 계약학과의 무한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

※ 계약학과 설치 운영 범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②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③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④ 군부대 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2012 신설대학 및 학과 소개

UI의 미래를 밝히다

동북아 거점대학을 향한 인천대학교의 행보가 거침없다. 인천대학교는 지난 9월 생명과학기술대학과 해양학과를 신설키로 하는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 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전통적인 항구도시이자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번 조정안에는 지역과 연계해 동북아 명문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인천대학교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인천대학교의 미래 발전계획의 단면을 보여주는 2012 신설대학 및 학과를 소개한다.

생명과학기술대학

한발 앞선 연구로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21세기 생물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산업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송도 신도시에는 배후에 의약 및 생물 분야 관련 산업체들이 많아 해당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데, 기초과학인 생물학에만 기반을 둔 인력 양성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송도 신도시로 캠퍼스를 이전한 인천대학교는 바이오를 기반으로 나노기술 관련 학과를 한 단과대학에 배치함으로써 상호의존적으로 결합되는 기술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할 뿐 아니라 기술, 제품, 서비스를 서로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를 생산하고자 한다.

특히 인천대학교가 위치한 송도 신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지구에 바이오신약단지와 생물산업연구단지, 대학의 R&D 기능을 연계하는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어 바이오 분야 연구지원 수요가 급증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의 수요에 대한 근접지원과 더불어 세계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바이오 융합 대학 성격의 생명과학기술대학 육성을 통하여 송도바이오단지, 송도사이언스 빌리지 등에 입주예정인 병원 및 바이오 분야 기업체에 연구인력 공급은 물론 응용연구 및 상업화 연구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생명과학부

● **생명과학전공**

생명과학전공은 생명과학기술대학의 모태가 되는 전공으로 타전공에 비해 기초 연구의 특성이 강하며 분야가 방대하다. 생명과학전공에서는 미시, 거시 및 통합생물학 분야가 포함되며 동 · 식물, 미생물의 생명현상 및 생명의 비밀을 탐구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현대 생물학의 교육 및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나갈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특히 '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및 생리활성 물질 개발' 분야를 특성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교과 과정** 환경생물학, 인체생명과학, 미생물학및실험, 동물분류학및실험, 식물분류학및실험, 세포생물학및실험, 유기화학, 생물통계학, 생화학및실험, 면역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유전체학 외
- **졸업 후 진로** 생물분류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식물보호기사, 교수, 연구직, 공무원 등 분류 및 생태 분야 전문가, 관련 기업체 및 국가단체 진출, 의학전문대학원 및 약학대학 진학 등
- **지원 및 혜택** ① 송도 신도시 내 산업체와의 협력으로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② 국외 유수대학에 교환학생 파견, 공동학위제 실시 ③ 생물관련 연구소 및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제도 운영 ④ 재학생 영어능력 향상 프로그램(멀티미디어실) 실시 ⑤ 학부생 연구참여제도 운영

● **분자의생명전공**

분자의생명(分子醫生命)전공은 분자생물학 기술 및 유전공학기술 등과 의과학의 융합기술을 다루는 유망 학문 분야로서 유전체학 및 단백질체학을 이용한 표적분자 발굴은 물론 유전자 재조합 및 세포배양을 통한 단백질 의약품의 제조, 생물공학 기술을 이용한 대량생산까지 가능한 토털 연구인력을 교육하고 배출함을 목표로 한다.

- **교과 과정** 세포생물학, 유기화학, 생화학, 의약화학, 종양생물학, 바이러스학, 면역학, 유전공학, 독성학, 발생학 외
- **졸업 후 진로** 대학교수, 연구소 등의 전문연구인력, 제약회사 연구원, 전 임상시험기관 연구원, 공무원, 의학전문대학원 등 의료교육기관 진학 등
- **지원 및 혜택** ① 융복합 연계전공 구축(타 대학과 협력하에 2~3개 연계전공 구축) ② 현장실습 등 산학협동 교육프로그램 추진 계획 ③ 생물학관련 기업체 CEO 또는 간부를 초청한 정기적 취업특강 개최 ④ 재학생 영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멀티미디어실) 실시 ⑤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

생명공학부

● 생명공학전공

생명공학은 생명체, 생명현상 및 생명정보를 산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학문분야로, 생명공학전공에서는 생물체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의 공업적 이용에 필요한 공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의약품공업, 식품공업, 바이오에너지 개발, 발효 공업 분야 등 다양한 생명공학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 실무능력 및 인성을 갖춘 기술자 및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 **교과 과정** 유기화학, 분석화학, 미생물학, 물리화학, 생물화학공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발효공학, 응용생화학, 대사공학, 단백질공학, 환경생물공학, 식품가공학, 식품위생학, 생물공정공학, 바이오비즈니스, 천연물화학 외
- **졸업 후 진로** 생물의약, 제약, 식품, 화장품, 농약, 환경, 에너지, 발효 관련회사 및 병원, 연구소 등
- **지원 및 혜택** ① 학부 재학 중 교수님들의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여 연구능력 배양 ② 국제교류 프로그램 일환으로 벨기에 겐트 대학 등 국외 유수 대학 교환수업, 공동학위 취득 가능 ③ 다양한 바이오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 및 인턴 기회

● 나노바이오전공

나노바이오기술은 진단칩, 신약후보 물질의 초고속 발굴, 생물분석기기 등 비교적 단기간에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일 뿐 아니라 전반적인 생명공학연구의 원천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나노바이오전공에서는 여러 생명공학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나노생체분석, 나노바이오칩/센서의 개발 및 활용, 그리고 새로운 생체 유래 나노소재 개발 등에 대한 시스템화된 교육과 더불어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 **교과 과정** 물리화학, 생화학, 유기화학, 결정구조학, 전기전자물성학, 나노소재제조공정, 물성시험및평가, 바이오소재공학, 발효공학, 면역학, 대사공학, 바이오멤스, 유전공학, 센서공학, 생물정보학, 바이오비즈니스 외
- **졸업 후 진로** 대학교수, 연구소 등의 전문연구인력, 관련 기업체 및 연구소, 공무원, 변리사, 벤처창업 등
- **지원 및 혜택** ① 관련 산업체 및 연구소와의 산학연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활성 및 학생진로분야 확대 ② 대형연구과제 수주를 통한 장학금 수혜 확대

해양학과

21세기 마지막 프론티어, 해양 분야 전문가를 키우는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자원의 보고, 해양은 육상의 광물 · 식량자원고갈 문제와 이산화탄소 저감, 기후변화, 신에너지 개발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해운, 항만 등 전통적인 해양산업과 더불어 해양관광, 해양환경 등 해양 관련 부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또한 인천지역은 인천공항, 인천항을 중심으로 국제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관련 기업 및 연구소가 위치해 있어 잠재 가능성이 매우 큰 편이다.

이에 인천대학교는 기존 자연과학대학 내에 해양학과를 신설하고 해양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세웠다. 인천대학교는 향후 바다에 인접한 지정학적 장점을 살려 해양바이오, 해양환경, 해양레저스포츠 및 물류시스템 등 4개 분야를 특성화하고, 영국 플리머스 대학과의 연계로 해양자원 및 환경학, 레저스포츠학, 물류통상학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계획이다.

- **교과 과정** 물리해양학 및 해양화학 기초, 해양생물학조사 및 실험 기법, 분자 및 세포 생물학, 생물해양학 현장 실습, 해양생물학, 생태학, 미소 생물체, 해양 보존, 환경 데이터 관리, 날씨와 기후, 환경 과학에 대한 융합적 접근, 해양 오염, 실무능력 습득 기업 과제 외
- **졸업 후 진로** 극지연구소, 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소,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등 해양 관련 기업 및 연구소,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강사 및 전문가, 해양 물류시스템 관련 전문가
- **지원 및 혜택** ① 영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실시 및 우수 성적자 포상 ② 가족회사 Pool을 활용한 취업 연계 및 산학협동 교육 프로그램 ③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반 운영

협력과 소통으로 'STEP-UP' 하다

2011 가족회사 만남의 장

인천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은 기업체와 학교가 서로 도약(STEP-UP)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9월 인천대학교 공연장에서 가족회사 만남의 장을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가족회사 대표 및 관계자를 비롯해 내외귀빈, 유관기관 관계자, 교수 및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행사 속에서 산학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였다. 대학과 기업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축제의 자리, 2011 가족회사 만남의 장. 그 뜨거운 열정의 현장에서 함께 열기를 느껴보았다.

STEP 1.

기술발전과 공동성장을 위한 소통의 장

지난 9월 22일 인천대학교 송도 캠퍼스 내 공연장. 오후 3시를 넘어서자 작업복 차림을 한 기업체 관계자 300여 명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인천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고 있는 수도권 지역 기업체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2011 가족회사 만남의 장' 자리였다.
로비에 마련된 7개의 전시관에서는 인천대학교 가족회사의 주력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산학협력 우수사례 소개, 무료특허상담, 인천대학교 RIC 공용장비 및 모바일실험실 소개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송도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업지원방안에 관한 패널전시와 학생들을 위한 지역 우수기업들의 취업설명회가 진행되었다.

STEP 2.

한해의 성과를 점검하는 축제의 장

가족회사 취업설명회와 산학협력전시관 관람에 이은 2부 행사에서는 인천대학교와 가족회사로 맺어진 기업체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인력 양성, 기술개발, 기술지도, 공용장비 활용, 재직자교육 등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총 13개 분야 39개 업체가 우수 가족회사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기술사업화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입상한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2011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산학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를 통해 기업과 대학의 협력 주체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STEP 3.

미래 비전을 향한 도약의 장

3부에서는 '가족회사 성공을 위한 산 · 학 · 연 · 관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하에 송도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CES, 스코틀랜드 국제개발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산학협력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송도테크노파크의 역할, 산학협력 우수사례,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국제 산학협력 교류방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를 통해 가족회사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기업체와 학교가 서로 도약하는 발전적 산학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STEP 4.

산 · 학 · 연 · 관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

마지막 4부 행사에서는 가족회사 인증패 수여 및 산학협력협의회별 간담회를 진행하여 회원사 간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기업체 관계자와 멘토 교수, 학생들이 어울려 자신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들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과 기술지원, 연구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회사, 이것이 궁금해요!

Q. 가족회사제도란 무엇입니까? 인천대학교와 기업체 간 상호호혜 성격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가족회사로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천대학교의 전공 교수를 멘토로 배정하여 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수행, 기술지도, 공용장비 활용, 경영/디자인 컨설팅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학생의 현장교육이나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가족회사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기 목적은 가족회사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인천대학교의 우수 연구 인력과 인적 연결고리를 맺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대학이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또한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 현장의 생생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호혜 기반의 산학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감으로써 기업 및 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가족회사제도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Q. 가족회사제도의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서 수도권 5개 선정 대학의 하나로 인천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2009년 6월). 인천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은 2013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1,000여 개 가족회사와 함께 산학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새로운 비상을 꿈꾸며…

제1회 도시 이노베이션 페스티벌

가능성의 도시, 인천

글로벌을 넘어 글로컬(global + local)이 주목받는 시대이다. 국제화와 함께 현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이 말처럼, 도시 발전에서도 글로벌화와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발전계획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과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전국 최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등 다양한 지리적 장점을 지닌 인천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호주 시드니 등과 비견될 정도로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2014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비롯해 중국 등 내외국인의 관광 수요 증가 등 사회 · 문화적 요인들은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 인천의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고 발전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크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에서 개최한 '제1회 도시 이노베이션 페스티벌'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도시 인천의 미래를 진단한 뜻깊은 자리였다.

심포지엄을 비롯해 토론회, 도시포럼, 학생 경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동북아 허브 도시이자 세계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인천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내 공연장에서 진행된 3차례의 심포지엄에서는 인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인천지역 도심 내 환경개선 방안' 심포지엄에서는 인천지역 환경오염 현황을 진단하고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인천시의 대기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악취 관리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악취문제를 진단하고 세계적인 환경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인천시의 도시재생과 생태공간 조성 전략' 심포지엄에서는 수인선과 경인선 주변의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생태공간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생태적 측면과 건설적 측면에서의 발표와 더불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환경과 생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도시발전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을 이루었으며, 환경문제의 예방적 해결과 사후 영향 최소화를 비롯해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 공론이 모였다.

인천대학교 5대 특성화 분야 중 하나인 '도시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도시과학대학에서는 지난 10월 5~6일에 걸쳐 제1회 도시 이노베이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인천의 도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여러 전문가와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 NGO 대표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인천지역 내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시발전을 위한 인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각계의 목소리를 담은 인천의 발전 로드맵을 펼치며 동북아 거점도시로 힘차게 비상하는 인천의 미래를 꿈꿔본다.

국내외 도시연구의 메카로 자리 잡다

심포지엄과 더불어 제1회 미추홀 도시포럼도 개최되었다. 도시과학대학 산하 도시발전연구원에서는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연구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시이론 발전 및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미추홀 도시 포럼을 창립하고 이번 페스티벌 동안 창립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도시포럼에서는 '경제수도 인천과 도시개발 방향', '경인아라뱃길 개통과 인천 해양레저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연구분과별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관점에서의 인천 도시발전', '인천 특성화 관점에서의 인천 도시발전'이라는 주제의 종합토론을 통해 인천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도시발전의 최근 경향을 논의하고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여 도시발전 및 도시이론분야를 선도할 이번 포럼은 향후 정례화되어 국내외 도시연구 분야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Interview **최계운** (도시과학대학 학장)

인천의 미래지향적 도시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과학대학이 되겠습니다!

인천의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제1회 도시 이노베이션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천대학교 5대 특성화 분야의 하나인 '도시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전국에서 2번째로 설립된 도시과학대학은 인천의 미래지향적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된 도시 이노베이션 페스티벌은 대외적으로는 인천의 현재를 바로 보고 민 · 관 · 산 · 학이 협동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점을 도출할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도시과학대학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특성화 전략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다기능화 되어가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과학 학문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에서는 다양한 학제 간 연구와 더불어 종합적인 전공지식을 갖춘 도시공학자 양성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교육과 연구, 그리고 도시발전의 중추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인천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도시과학대학의 미래를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정시 입시 Key Point

2012 인천대학교 정시 모집의 특징과 지원전략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남에 따라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정시모집에 쏠리고 있다. 올해 수능시험이 예상보다 쉬웠던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학생부 반영비율, 가산점, 영역별 반영비율 등 대학별 입시정보를 철저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송도 캠퍼스 이전과 인천전문대학과의 통합으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며 그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인천대학교의 2012학년도 정시모집의 특징과 지원전략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 본다.

2012학년도 신설 대학 및 신설 학과에 주목하라!

교과부의 2012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정원 운영계획에 따라 인천대학교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작년보다 129명이 증가한 1,50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에 변경이 있는데, 우선 자연과학대학 내에 해양학과(32명, 이하 괄호는 입학정원)가 신설되어 이번 정시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며, 생명과학기술대학의 생명과학부(60), 생명공학부(65)가 신설되어 수시에 이어 정시에서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특히 생명과학기술대학은 신설 단과대학으로, 생명과학부는 생명과학과 분자의생명, 생명공학부는 생명공학과 나노바이오의 각각 2개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학년 신입생은 학부로 모집한다.

이외 기존 공과대학의 나노공학과가 폐지되며, 자연과학대학의 수학과는 입학정원이 5명 늘어나 정원이 총 40명으로 확대된다. 반면에 컴퓨터공학부와 디자인학부, 체육학부는 입학정원이 감소함에 따라 경쟁률을 비롯해 입학정원, 학과의 특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입시전략이 필요하다.

정시모집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쉽게 출제되었다는 분석에 따라 정시모집에서의 수능 1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도 입학전형부터 〈가〉군 일반학생 전형 수능반영비율이 80%로 확대되고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은 6%대로 대폭 낮아졌다. 또한 〈다〉군 수능우수자 전형은 학생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수능 100%로 전형을 하기 때문에 올해 정시모집에서는 실질적으로 수능 점수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자 중 수리 가형 응시자에게 수리 백분위 점수의 10%를 입시총점에 더해주는 방식으로 가산점을 제공한다. 특히 교차지원이 가능한 소비자 · 아동학과와 패션산업학과의 경우 자연계열로 분류되어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리 가형 응시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렴한 등록금과 풍부한 장학 혜택

향후 국립대 특수법인 전환을 앞둔 인천대학교는 현재 시립대학으로서 등록금이 타 대학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장학금 수혜율이 전국대학 10위권을 자랑한다. 이와 함께 국제통상 및 물류, 지능형시스템융합, 생명과학, 도시과학, 지역인문학 등 5대 분야를 특성화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특성화 학부인 동북아국제통상학부의 경우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4개 통상전공의 모든 학생에게 4년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 혜택, 1년간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능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수능우수자 전형의 경우 최초 합격자들에게 1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계열별 지정영역 1등급 이상인 자)라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58명이 증원된 283명을 선발함에 따라 수능성적이 우수한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매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2학년도 정시 모집 안내 및 상담

입학안내 : **www.incheon.ac.kr/admission**
입시상담 : 입학관리과 **032) 835-0000**
정시모집 원서접수 : **www.uwayapply.com**

2012학년도 인천대학교 정시모집 전형일정

접수마감 (인터넷 접수)		2011. 12. 23 (금) ~ 12. 28 (수) 17:00까지
대학별고사(실기고사)	일반학생(공연예술학과, 체육교육과)	2012. 1. 11 (수)
	일반학생(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체육학부, 운동건강과학부)	2012. 1. 13 (금)
합격자발표일	최초발표일	2012. 2. 3 (금)
	최종발표일	2012. 2. 22 (수)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모집시기	전형유형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가	일반학생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제외)	1,054	고등학교 졸업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없음
다	일반학생 (동북아국제통상학부)	25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수능 4개(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또는 5개(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1등급인 자 ※ 단, 탐구〈사회/과학〉 영역은 3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이 1등급일 경우 탐구 1등급으로 인정	없음
다	수능우수자	283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 인문사회계열 : 수능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상위1과목〉) 중 상위 2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인 자 • 자연계열 : 수능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상위1과목〉) 중 상위 2개 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인 자 • 소비자 · 아동학과, 패션산업학과 : 수능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사탐/과탐〈상위1과목〉) 중 상위 2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인 자 • 체육학부, 운동건강과학부 : 수능 3개 영역(언어, 외국어, 사탐/과탐〈상위1과목〉) 중 상위 2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인 자	없음
다	농어촌학생(정원 외)	70	•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 농어촌지역 읍 · 면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생존 시) 모두가 해당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신활력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 · 면 지역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을 읍 · 면 지역으로 봄. ※ 읍 · 면 소재 특수목적고(외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 출신자 및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	출신고교장 추천서 등
다	특성화고출신자(정원 외)	69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중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종합고등학교의 인문 · 자연과정(보통과)은 지원불가 ※ 출신 특성화고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유사)계열이라고 인정되는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	출신고교장 추천서 (동일계열 확인서)
계		1,50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대학교 정시모집요강 참고

신입생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모집시기	장학금명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기간	지급인원	비 고
가, 다	수석장학금 (일반학생)	단과대학 수석	등록금 전액	1년	12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이어야 함
		학부 또는 학과 수석	등록금 전액	1학기	58	모집단위별 수석자에게 지급
다	수능성적 우수장학금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언어 또는 외국어영역이 1등급 〈자연계열〉 : 수리 또는 외국어 영역이 1등급	등록금 전액	1학기	283	수능우수자전형 최초 합격자 (최초등록자)에게 지급
	동북아국제통상 장학금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입학생 (기숙사 제공 + 1년 해외유학)	등록금 전액	4년	25	재학 중 직전학기 종합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이어야 함

※ 위 장학금은 당초(최초) 합격 장학대상자에 한하며, 〈동북아국제통상장학금〉은 예외임

※ 기타 시민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인천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 vol. 53
University of Incheon
news

안경수 총장, 글로벌 CEO 수상

인천대학교 안경수 총장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CEO로 선정됐다. 중앙일보 포브스코리아는 대한민국 글로벌 CEO 선정위원회가 주관하고 중앙일보 ·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는 '2011 대한민국 글로벌 CEO' 선정식에서 안경수 총장을 글로벌 인재양성 경영부문 '글로벌 CEO'로 선정, 지난 9월 1일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11 대한민국 글로벌 CEO'는 글로벌 인재양성 경영, 브랜드 경영, 마케팅 경영 등 모두 12개 부문을 대상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며 경제 발전에 기여한 영향력 있는 CEO를 선정하여 수상하고 있다.

인천대 레스토랑 '본아뻬띠' OPEN

송도국제도시에서 신캠퍼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인천대학교가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수준 높은 고급 레스토랑 '본아뻬띠(bon appétit)'를 지난 10월 21일 개장하였다. 인천대학교 교수회관 3층에 위치한 본아뻬띠에서는 특급호텔 출신의 전문 조리사가 선보이는 다양한 고급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세미뷔페, 각종 코스요리, 출장뷔페, 도시락 등 고객의 취향에 맞는 다채로운 메뉴를 다양한 가격대에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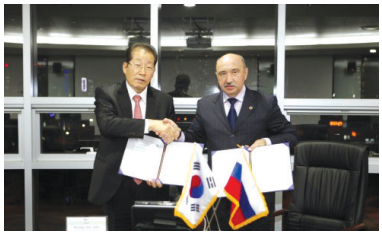
프랑스어로 '맛있게 드세요.'라는 의미가 담긴 본아뻬띠에서는 바쁜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약선 및 궁중음식과 맞춤형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송도국제도시 내 품격 있는 레스토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천대-미래국제재단 새싹 멘토링 봉사기금 협약 체결

인천대학교는 지난 11월 8일 민간단체인 미래국제재단과 공동으로 지역의 저소득 중 · 고교생의 인성을 함양하고 학습을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인천대학교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학업에 열중하는 재학생 100여 명을 뽑아 중고생 학습지원 멘토로 활동하도록 매월 54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주말이나 수업이 끝난 후 최첨단 무료 화상연결 시스템을 통해 중고생들에게 학습이나 인성을 지도한다. 대학생 1인당 4~6명을 담당하며 총 수혜 중고생은 400~600명으로 인천시교육청을 통해 추천된다. 미래국제재단은 인천대학교에 연간 3억 원의 봉사기금을 지원, 저소득 중고생 학습지도 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번 협약은 '대학이 순수 민간단체와 협력해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향후 수혜학생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인천대 - 러시아 명문 카잔연방대 '학술교류협정 체결'

인천대학교가 지난 11월 7일 러시아 명문대학인 카잔연방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카잔연방대학은 재학생이 4만여 명이며 러시아의 8개 연방대학 가운데 3위에 속하는 대학이다. 이



번 협정은 인천대학교 안경수 총장과 카잔연방대학의 일샤트 가푸로브 총장 및 라이나 라티보브 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측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복수학위 프로그램 △교수 공동연구 △연구자 및 강의교수 방문제도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대외협력과 고덕봉 팀장은 "모스크바국립대학,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과의 교류에 이어 카잔연방대학과 교류함으로써 한 · 러 대학 간 교류에서 우리 대학이 큰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학교는 현재까지 모스크바국립대학에 130여 명의 학생을 파견한 상태다.

인천대 산학협력단 - 송도TP 기술공동개발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정규)과 송도테크노파크(이하 송도TP)가 인천지역 산업 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11월 9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 대회의실에서 △시험장비 공동 활용 △기술개발지원사업 공동 참여 △공동 교육 프로그램 기획 · 운영 및 워크숍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협력 협약(MOU)을 맺었다.

이윤 송도TP 원장은 "실질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산 · 학 · 연 네트워크가 보다 강화돼야 한

다."라며 "이번 협약은 기술기반산업 발전 등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대학교 ISEY 아카데미 교육생과 연수구민이 함께하는' 인천 사회적기업 박람회 개최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지난 10월 28일 구청 1층 송죽원에서 '인천대학교 ISEY 아카데미 교육생과 구민이 함께하는 인천 사회적기업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인천대학교 사회적기업 연구센터가 주관하고 연수구청,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인천지역 우수사회적기업 생산품의 홍보 · 전시 · 판매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친화적인 지역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박람회에는 청년기업 딜라이트㈜를 비롯해 ㈜청소사랑, ㈜아이티그린, ㈜아가페요양센터, 두리지역복지센터 남동사업단 등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적기업과 ㈜송도에스이, ㈜크린웰 등 연수구의 사회적기업 5개 업체 등 총 18개의 대표적 사회적기업이 참여해 구민들과 눈높이를 같이하며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생산품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인천대 - 육군종합군수학교 군 물류 교육 · 연구 협약

인천대학교는 지난 10월 26일 육군종합군수학교와 군 물류 분야의 교육 및 연구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광역시 자운대에 위치한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인천대학교 안경수 총장을 비롯해 동북아물류대학원 곽봉환 원장, 육군종합군수학교 이용석 교장 등 군 물류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안경수 총장은 "물류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대학교와 육군의 군수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최고 교육기관이 만났다."라며 "양 기관의 교육 및 연구협력을 통해 군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과 군의 물류가 한 단계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은 군수 관련 장교들을 대상으로 고급 군 물류교육과정을 제공해 왔다.

인천대 - 인천도시개발공사 협약 체결

인천대학교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인천 도시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인천대학교 안경수 총장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이춘희 사장은 지난 10월 6일 인천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인천 도시발전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기업 경영 및 혁신 자문 △도시계획 등 전문과정의 교육 및 지원 △상호 협력과제의 공동 발굴 및 수행 △학술세미나 및 포럼의 공동 개최 등을 진행한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포럼을 정기적으로 공동 개최하는 등 학술 연구활동도 벌여 나갈 계획이다.

다문화가정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인천대학교는 지난 11월 10일 셀트리온 복지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 내 다문화가정 8가구를 방문, 벽지를 도배해주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행사에는 최재순 소비자 · 아동학과 교수의 지도하에 자연과학대학 등 인천대학교 학생 40여 명이 참여했다.

최재순 교수는 "올해의 경우 비가 특히 많이 와서 집안의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다문화 소외가정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8가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인천대학교는 자연과학대학을 중심으로 해마다 지역 다문화가정 1~2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올해는 셀트리온 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대상가구를 크게 늘려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인천대 - 산단공 맞춤형 취업지원 MOU

인천대학교는 지난 10월 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와 대학 청년 구직자 및 산업단지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남동산업단지를 고용창출 거점인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로 전환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인천대 취업카페 설치', '남동인더스파크 입주기업 구인활동 지원', '대학 졸업(예정)생 남동인더스파크 취업 연계' 등 두 기관의 상호 협조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업단지공단은 향후 대학에 우량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인천대학교는 산업현장 투어 및 탐방과 채용 설명 · 박람회, 공모전 등 다양한 지원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명주 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청년 일자리 제공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 산업단지와 중소 규모 기업체에 대한 인식 개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영대학원, 글로벌경영포럼 개최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은 지난 9월 28일 송도캠퍼스 공연장에서 경영대학 교수 및 중소기업 경영자,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글로벌경영포럼'을 개최했다. 1 · 2부로 각각 나눠 진행된 이번 포럼은 1부에서는 우리나라 IT 산업의 선구자인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이사의 특별강연과 김준우 경영대학원장과의 대담, 강연자와 객석 참석자 간 질문과 답변 등으로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행사에 참석한 CEO들과 강연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4회째를 맞는 글로벌경영포럼은 성공적인

2011 ● vol. 53
University of Incheon
news

경영 기법의 확산과 경영인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창립됐으며,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대학생 의정 아카데미, 차세대 정치가 육성

인천시의회(의장 류수용)는 대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지방의회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1월 10일 대학생 의정아카데미를 열었다. 인천대 사회과학대학 서진완, 이준한 지도교수와 학생 40여 명은 이날 시의회를 방문해 의회 및 시정 홍보 영상 시청, 의원과의 대화, 대학교수 특강, 상임위 및 본회의 시연 등 체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가 학생들은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후 본회의장에서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직접 선정한 안건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카데미 과정은 지난해 하반기 처음 개최되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150여 명의 인천지역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문화도시 인천' 전문가 양성 내년 인천대에 문화특수대학원 설립

인천지역에 문화 정책 및 기획 전문가를 양성하는 문화특수대학원 설립이 추진된다. 인천시와 인천대학교는 이르면 내년 인천대학교에 문화 특수대학원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9월 29일 밝혔다.

인천대학교는 향후 인천문화재단 등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화대학원 설립 및 운영계획, 교과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이다.

문화대학원에는 연간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정책아카데미를 운영, 문화에 대한 기본 마인드 형성에도 일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은 "문화도시 인천을 지향하려면 문화 전문가 육성이 절실하다."라며 "단기적으로는 특수대학원 형태이지만 추후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대 수시 2차 경쟁률 13.04 : 1 송도캠퍼스 개막 후, 가장 높은 수시 경쟁률 기록

인천대학교가 2012학년도 수시2차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692명 모집(정원 외 포함,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은 제외)에 9,023명이 지원, 13.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송도캠퍼스로 이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시 경쟁률이다. 지난해 수시2차 경쟁률은 9.43대 1이었으며, 2012학년도 수시1차는 총 740명 모집(정원 외 포함)에 9,113명이 지원, 12.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대는 수시2차에서 올해 신설한 일반학생 전형을 비롯해 지역우수인재(수도권) 전형 등 모두 5개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전형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모집인원이 522명으로 가장 많은 지역우수인재 전형은 9.9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89명을 모집하는 일반학생 전형은 34.89대 1을 기록,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고, 4년 장학금 혜택 등을 제공하는 UI차세대리더 전형(37명 모집)은 1대 1로 마감했다. 지역우수인재 전형에서는 신문방송학과와 에너지화학공학과의 경쟁률이 13.71대 1로 가장 높았고, 신소재공학과와 국어국문학과, 소비자 · 아동학과 등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학생 전형의 경우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정치외교학과, 신문방송학과, 창의인재개발학과 등에서 평균 5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기회균형 · 장애인학생 전형 인천대, 수시 전형료 면제

인천대학교는 2012학년도 수시2차 모집에서 기회균형 전형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전형료를 면제했다.

기회균형 전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복지급여 수급 및 비수급자)과 소년소녀가장 등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1~3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인천대는 이들 전형 지원자들의 전형료(기존 7만 원)를 전액 면제해 주었다.

현행 수시모집에서는 지원횟수에 제한이 없어 한 학생당 평균 5~7개 대학에 원서를 내는데 이에만 대략 40~50만 원이 든다. 따라서 인천대학교의 이번 결정은 이들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다.

김내현 교수, '대한기계학회 학술상 (KSME Award)' 수상

기계시스템공학부 김내현 교수가 지난 11월 3일 대구 EXCO에서 개최된 대한기계학회 2011년 정기총회에서 '대한기계학회 학술상 (KSME Award)'을 수상하였다. '대한기계학회 학술상'은 '기계공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연구를 계속한 자로서 획기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에게 수여하는 기계학회 최고의 공로표창이다. 김내현 교수는 열공학 분야의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아 2011년 '대한기계학회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김 교수는 2009년 '대한설비공학회 학술상', 2006년 '아시아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고 현재 International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의 편집장, Journal of Enhanced Heat Transfer의 편집인 등을 역임하고 있다.

서진완 교수 '길 위의 공부' 발간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학생 강의는 물론 자녀교육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서진완 교수가 아들과 함께 떠난 여행기 『아빠와 아들의 성장 교육 – 길 위의 공부』라는 책을 발간해 자녀교육의 표본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3년 전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35일간 807㎞에 이르는 '순례자의 길' 산티아고 프렌치 루트(French root)를 완주하면서 일기처럼 썼던 여행일지를 새롭게 수정 · 보완해 만든 것이다.

"사람이 살면서 배워야 할 소중한 가치는 바로 정형화되지 않은 길 위에 있다."라는 서 교수는 "걸으면서 인내를,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로 배려를, 일정을 결정하면서 협상을, 그리고 매일 짐을 싸면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는 무소유 정신을 터득할 수 있게 했다."라며 자연 속의 배움을 강조했다.

안재창 배드민턴 감독, 인천체육지도자상 최우수지도자상

인천신문사가 매년 제정, 시상하고 있는 '2011 인천체육지도자상' 최우수지도자상에 안재창 인천대학교 여자배드민턴 감독이 선정됐다. 인천체육지도자상은 2007년부터 매년 인천신문사가 전국체육대회 폐막 후 시행해 오고 있는 상으로, 특히 인천체육지도자상은 잠재된 체육 인력 육성을 위해 최전선에서 땀 흘리는 지역 내 지도자를 발굴하고 올바른 체육지도자상의 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한 안재창 감독은 지난 2009년 전국체전 배드민턴 여자 단체전 4연패의 위업을 이룬 후 지난해 정상 등극에 실패했으나 올해 다시 정상을 탈환하며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이번 시상은 지역의 체육지도자들에게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고 국제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는 인천의 체육 인프라 육성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대 '뉴 디렉션팀', 희망프로젝트 금상 영예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인천지역 대학생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우수기업을 이어주는 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송도테크노파크(이하 송도TP)는 지난 10월 10일 미추홀타워 대회의실에서 '지역 대학생–지역 우수기업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우수한 보고서를 낸 대학생 팀을 선정 · 시상하였는데, 인천대학교 뉴 디렉션(New Direction) 팀(박숙경 · 정윤지 · 이선호)이 홍보동영상 부문 금상을, 더 온리 원(The Only One) 팀(양초롱 · 신재희 · 김해용)이 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올해 여름방학 동안 지역 대학생들이 지역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 근무환경 등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한 뒤 홍보동영상과 탐방보고서를 작성 · 제출해 우열을 겨뤘다. 금상을 수상한 뉴 디렉션 팀은 세계 최초로 베어링용 플라스틱 게이지를 개발한 인성엔프라㈜(인천시 서구 가좌동)를 대상기업으로 선정, 작지만 국내 유일의 기술력을 가진 강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해 심사단으로부터 좋은 성적을 받았다.

가수 김장훈 인천대에 장학금 기탁

'기부천사' 가수 김장훈이 인천대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했다. 지난 5월 인천대학교 축제 무대에 섰던 김장훈은 초청 공연을 마친 뒤 공연비의 일부인 1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김장훈은 축제를 주관한 총학생회와 대학이 함께 고민해 장학금을 필요한 곳에 써달라는 조건도 달았다. 대학과 총학생회 측은 '김장훈 장학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10명에게 100만 원씩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의 경우 정부에서 학비 전액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총학생회와 협의하였다."라면서 "총학생회로부터 차상위계층 학생 중에 10명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지급하였다."라고 말했다.

인천대 사랑나눔 교직원회, 남구청에 '사랑의 후원금' 전달

인천대학교 사랑나눔 교직원회(회장 경노훈 교수)는 지난 11월 21일 남구청(구청장 박우섭)을 방문해 관내 독거노인 및 재가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지난 10월 11일 인천대학교 교직원식당에서 열린 제5회 인천대학교 '사랑나눔 자선음악회' 행사에서 후원된 수익금 일백만 원과 백미 40㎏이다.

사랑나눔 교직원회는 2008년 11월 첫 자선음악회 개최 이후 지금까지 음악회 수익금을 남구의 불우 이웃돕기 후원금으로 쾌척하고 있다. 경노훈 교수는 "작은 음악회를 통해 십시일반 모은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사랑과 큰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탁한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남구의 저소득주민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귀하의 고귀한 정성과 관심이 인천대학교를 세계 속의 명문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발전기금 구분 및 용도

대학발전기금은 시설투자와 연구사업, 장학사업 등 전액 인천대학교의 미래를 위한 투자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구분	용도
일반 발전기금	기부하신 분이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대학에 일임한 기금으로, 대학의 중장기 제반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지정 발전기금	기부하신 분이 특정 대학(원), 학과(부)에 지정 출연한 기금
목적 발전기금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한 기금

기부 참여방법

자동이체(CMS) : 기부자가 직접 은행에 가는 수고 없이 기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계좌로 매달 약정하신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결재 :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fund.incheon.ac.kr) 접속 후 신용카드로 발전기금을 기부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급여공제 : 본교 교직원에 한하여, 매월 급여에서 약정하신 일정액을 공제하여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납부 : 대학에 방문하여 직접 기부하시는 방법입니다.

ARS 모금전화 : **060-703-1212**로 전화하시면 한 통화에 3,000원의 발전기금이 적립됩니다.

무통장 입금 :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개설된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계좌로 입금 후 전화를 주시면 기부금 관련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1325-01-000611** (예금주 : **(재)인천대학교발전기금**)

예우 프로그램

구분	내용	PRESIDENT'S HONOR				PLATINUM HONOR	GOLD HONOR	SILVER HONOR	BRONZE HONOR	PARTNERSHIP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기부자 명예헌정 및 예우	건물명칭 부여	●								
	흉상/존상 제작	●	●							
	부조상 제작	●	●	●	●					
	강의실 명칭 부여			●						
	사진동판 제작 (180mm×200mm)					●	●			
	사진동판 제작 (180mm×50mm)							●		
	동판명패 제작 (180mm×50mm)								●	●
학교시설 이용편의	도서관 평생 이용	●	●	●	●	●	●	●		
	주차장 무료 이용	●	●	●	●	●	●	●		
기념품 및 간행물	감사패	●	●	●	●	●	●	●	●	
	기념품(생일/창립일)	●	●	●	●	●	●	●	●	
	정기간행물	●	●	●	●	●	●	●	●	●
	감사문	●	●	●	●	●	●	●	●	●
	개인달력 제작	●	●	●	●	●				

※ 상기 예우 프로그램은 후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기부(약정)인	성명(상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구분	분 류	일반( ) 동문( ) 학부모( ) 재학생( ) 교직원( ) 기업 · 재단( )		
		동문 · 재학생	입학년도:	대학(원):	학부(과):
	연락처	자 택 주 소		전 화 번 호	
		직 장 주 소		전 화 번 호	
		직장명/부서		직 위	
		e-mail		휴 대 폰	
기부(약정)액		금 원			

납부방법	무 통 장 입 금	농협 : 1325-01-000611	예금주: (재)인천대학교발전기금
	일 시 납	년 월 일 납부(예정)	
	분 할 납 / 월 납	년 월 일 ~ 년 월 일 월납부액 : 원(회)	
	자동이체 (CMS)	은행명: 결제일: ☐ 5일 ☐ 15일 ☐ 20일 ☐ 25일 계좌번호:	
	교 직 원 급 여 공 제	공제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까지	
기금출연권유자		※ 기금출연 권유자 명기 시 반드시 기부자께서 자필로 권유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전화(휴대전화):	
약정 방법 안내		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인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인천대학교 총장 귀하

(재)인천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인천대 레스토랑 본아뻬띠

'bon appétit'

인천대학교 교수회관 3층에 개장한 본아뻬띠에서는 특급호텔 출신의 조리장이 선보이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미 뷔페를 비롯하여 각종 코스 요리와 출장뷔페, 도시락 등 고객의 취향에 맞는 다채로운 메뉴를 맛볼 수 있으며,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약선 및 궁중음식 등 차별화된 맞춤형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레스토랑, 본아뻬띠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글로벌 한국교육을 선도해가는 인천대학교의 미래를 음미해보시기 바랍니다.

영 업 시 간 점심 11:30 ~ 14:30 / 스낵 15:00 ~ 17:00 / 저녁 17:30 ~ 21:00
예약 및 문의 032) 858-1231~2

보내는 사람

주소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1.6.1 ~ 2012.5.30
인천우체국
승인 제40075호

인천대학교
University of Incheon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송도동 12-1)
406-772

풀칠하는 곳

Thanks to...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해 주신 분들

2011.8.18~2011.10.31

100만원 이상

성명	대학과의 관계	기부액
인천항만물류협회	법인	5,000,000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	동문	3,000,000
(주)배가프로덕션	기업	2,000,000
박정훈	교수	2,000,000
(주)에이그레이스	기업	1,000,000
변윤식	교수	1,000,000

100만원 미만

성명	대학과의 관계	기부액
(주)바른교육	기업	798,600
배양섭	교수	600,000
김정용	교수	500,000
이갑영	교원	300,000
이득주	동문	300,000
이재성	동문	300,000
최두원	동문	300,000
김기웅	교원	200,000
김영관	교원	200,000
김장성	동문	200,000
김주영	동문	200,000
김희철	동문	200,000
박인호	교원	200,000
박창화	교원	200,000
배진교	동문	200,000
손천택	교원	200,000
신동욱	동문	200,000
윤찬원	교수	200,000
이군익	동문	200,000
이병수	교수	200,000
이상락	교수	200,000
이승민	동문	200,000
이은주	교수	200,000
이재석	교수	200,000
이종열	교수	200,000
이찬식	교수	200,000
장영애	교수	200,000
전인갑	교수	200,000
최근영	교수	200,000
충남집	기업	200,000
함정호	교수	200,000
김병훈	동문	150,000
김숙진	동문	150,000
김진우	동문	150,000
임주택	동문	150,000
곽문선	교수	100,000
권기체	직원	100,000
김광열	직원	100,000
김길원	교수	100,000
김승환	직원	100,000
김영주	직원	100,000
박종욱	교수	100,000
박향경	동문	100,000
신원태	교수	100,000
우인성	교수	100,000
우종택	교수	100,000
유정흔	동문	100,000
윤 용	동문	100,000
이미가엘	교수	100,000
전인갑	교수	100,000
최호규	동문	100,000
김순중	동문	90,000
박 웅	동문	90,000
신동태	동문	90,000
안춘순	교수	90,000
윤덕영	동문	90,000
강경태	동문	60,000
김정곤	교수	60,000
김찬주	교수	60,000
김희강	동문	60,000
박은경	교수	60,000
신호수	교수	60,000
오복자	기업	60,000
우창기	교수	60,000
윤영돈	교수	60,000
이동엽	동문	60,000
이숭열	직원	60,000
이창석	학부모	60,000
임찬옥	직원	60,000
장인우	교수	60,000
조윤구	동문	60,000
조한장	동문	60,000
한상철	교수	60,000
한상혁	직원	60,000
유혜경	교수	50,000
임 순	교수	50,000
고민정	교수	40,000
곽용성	직원	40,000
김규원	교수	40,000
김순옥	직원	40,000
김영구	교수	40,000
김태영	직원	40,000
김현진	교수	40,000
박종석	직원	40,000
서재신	직원	40,000
손정숙	직원	40,000
유현국	동문	40,000
이선식	직원	40,000
정구천	직원	40,000
최명종	직원	40,000
김은희	동문	30,000
성정옥	동문	30,000
유병순	동문	30,000
이강우	동문	30,000
이병기	동문	30,000
임경님	동문	30,000
최현아	동문	30,000
한현미	동문	30,000
홍주학	동문	30,000
강병민	동문	20,000
강현자	동문	20,000
김성은	동문	20,000
김재철	동문	20,000
김종인	직원	20,000
김지훈	동문	20,000
김치용	동문	20,000
김현숙	직원	20,000
김현진	동문	20,000
문종욱	동문	20,000
박도균	동문	20,000
박명순	직원	20,000
박일충	직원	20,000
박정희	동문	20,000
배가람	동문	20,000
서상범	직원	20,000
신천수	직원	20,000
신현호	동문	20,000
윤병선	동문	20,000
이상봉	동문	20,000
이정희	직원	20,000
이종훈	동문	20,000
정수민	동문	20,000
추나영	동문	20,000
한상길	동문	20,000
윤희랑	동문	15,000
강현자	동문	10,000